열왕기하 20.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왕하 20 장 1-21)

들어가기

본 장은 일찍이 앗수르의 침략(18,19 장)을 믿음의 기도로 물리친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로 죽을 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스스로 자만해졌고, 병문안을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궁 안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히스기야'의 실수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1.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2. (1-11 절)

1)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1 절)

①. 우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때는 언제인가?

- 1 절, '그 때에'= 'About this time'
  - 곧 바로 19 장 37 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앗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살해당한 그 무렵으로 추측.

➢ 참고: 그럼 이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난 때에 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일까?

- 역대하 32 장 23-26 절이 설명
  - 23 절: 앗수르를 물리친 '히스기야' 왕에게 각지에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옴! 그로 인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기록!!
  - 25,26 절: 그러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만해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

②.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 회복되지 못하게 죽게 될 것!
- 따라서 지금부터 집을 정리하라!
  - 1 차원적 의미는 맞이할 죽음을 알고 이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라는 것!
  - 영적으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것!
  - ✓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평소에 회개하고, 평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2) 그럼 이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2-3 절)

①.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음!

- 이런 모습은 우선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것을 의미.
- 그리고 이런 상황(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 분께 기도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임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

➢ 참고로 역대하 32 장 26 절을 보면, 이때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며 회개했고, '히스기야' 뿐만 아니라 **<u>예루살렘 주민들도</u>** 그와 같이 하였다고 기록함!!

②. 특별히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_____과 _____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_____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통곡하며 간구했음!!

-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행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함!
-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온 믿음의 삶, 선행의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심!!

3) 그럼 이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4-6 절)

①. 우선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로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 (4 절)

- '성읍 가운데' = '예루살렘 궁전 안뜰'을 의미!
  - 곧 '히스기야' 왕이 진실로 회개하며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주어진 것!
  - 이는 곧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
-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

②.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4 가지 응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

- 첫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들으셨다고 인정해 주심!
- 둘째,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___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것!
- 셋째, '히스기야'의 남은 생을 _____년간 더 연장 시켜 주실 것!
- 넷째, 하나님 자신(곧 자기 이름)과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을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지켜 주실 것!

4) 말씀을 다 전한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여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붙여 병이 치료되게 하였습니다. (7 절)

- 참고로 무화과 반죽은 당시 종기나 궤양의 치료약으로 사용되었다고 함.
- 그럼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외과적 처방을 행했을까?
  -
  -
  - 한 신학자의 코멘트
    '평범하고 일반적인 치료약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5) 상처의 나음을 얻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징표를 구했습니다. (8-11 절)

①. 이때 '이사야'는 해 그림자를 십도 나가게 할 것인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지? 정하게 함!

②. 그러자 '히스기야'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어려우니,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구함!!

③. '히스기야'의 청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이 나타났음!!

➢ 참고로 해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는 앗수르 시대에 최초로 발명되었을 것이라고 추측 (Herodotus).

- 그런데 평소 앗수르를 따랐던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가 이 시계를 보고 예루살렘에도 만들었다는 것!

- 당시 해시계는 30 분이 1 도로 표기 되었는데, 10 도가 뒤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5 시간을 뒤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의미!
- 곧 하나님은 이 같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셨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

2. 바벨론 사신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을 자랑한 '히스기야' (12-21 절)

1)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편지와 예물을 사신들 편으로 보냈습니다. (12 절)
   - 우선 당시 '브로닥발라단'은 바벨론의 왕이 되자마자 약 20 년동안 앗수르와 투쟁하던 중.
   -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앗수르를 물리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정치적으론 좋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 따라서 사신을 보내 상황을 확인하려 함!

2) 이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보물고의 모든 금. 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 나아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13 절)
   - 특별히 당시 '히스기야'는 나라 안의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다 보여주었다고 기록!

   ➢ 그럼 당시 '히스기야' 왕은 왜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었을까?
   -
   -

3) '히스기야' 왕이 모든 보물들과 무기들을 사신들에게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14-19 절)

   ①. 우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확인함!
   - 이에 대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었다고 정직히 말함.
   - 참고로 우리도 실수한 것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정직히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자.

   ②. 이후 하나님의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전함!
   - 첫째,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
   - 둘째, '히스기야'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
     (이는 곧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

   ③. 그럼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9 절)
   -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다 (옳다) 고 고백!
   - 둘째, 자신이 사는 날이라도 평안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
     - 이것은 자신이 행한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은 그의 한탄스런 표현이 아닐까?

4) '히스기야' 왕의 특별한 업적과 죽음
   ①.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예루살렘 성의 생활용수를 해결!!
   ②. 그의 뒤를 이어 아들 '므낫세'가 제 14 대 유다 왕이 됨.